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Ô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주일에배를 위한 제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준비하는 찬송.



『주간촬원』에서는 7월 22일 주근부터 계 6면을 통해서 다음 주일 예배 찬송을 소개하게 된다. 이것은 주일 예배시간에 드리는 찬송이 더욱더 신령과 진리로 찬양하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주간촬원』을 통해서 시노회에서는 “다음 주일 찬송”을 한 주만 고안, 정리 및 목상하고 기도하라는 취지이다. 주일 예배 때에는 찬부님의 외용 수 있을 뿐 아니라 깊은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소개는 음악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두 부문으로 설명할 것인데, 이는 찬양도구의 사용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한편의 모든 성도들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열광 있고 깊이 목상된 찬양이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랐다.

교역자 청빙

지난주 수요일(7월4일) 당회에서는 네 분의 교역자를 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번에 청빙된 이들은 김옥득 목사(1964. 11. 7日生, 前 성덕교회), 이성욱 목사(1965. 6. 17日生, 前 부산세종대성교회), 고광환 목사(1966. 8. 19日生, 前 광주대성교회), 신성식 목사(1968. 1. 23日生, 前 대천성교회)이다. 총원교회로 새로 오시는 이들이 연중을 향한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요일에 배 메시지

믿음 (히 11:1)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용어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인간과 다른 자라는 출발, 대니·윤리·철학·철보 등 세 가지 성적인 다른 것은 도대체 무엇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 없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믿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히 11:6). 그러므로 만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약화시키면 무수한 인간적 성격 자체를 무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믿음의 태도 없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믿음을 대신하여 율법과 행위를 내세운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감 심한 경고를 하셨다. "와 있은지니 회개하는 자기 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마 23:13,25,27,29). 그들의 종교성과 행위는 뛰어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심장은 불꽃같은 성자 하나님의 눈에는 '회칠한 무덤'으로 판단될 뿐이었다. 결국 믿음 없던 그들은 '회칠한 무덤'을 갈라내야 하고 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다. 그러다 한 평생을 애통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가 된 바리새도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가! 예수를 향하여 "대외의 자는 예수나, 이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아주 단순한 한 마디는 하나님의 바림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으며(마 10:49),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다(마 10:49).

이와 같이 그는 영혼이 어느대로 결단하여도 그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함은 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롬 2:8).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한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믿음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한 가지이다.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며, 결코 외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브리튼의 저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믿음'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적용하였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양을 선택하였으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단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뿐이다(히 11:4). 예수께서 제사, 즉 예배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신과와 지적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실지"라는 것을(요

(요 4:23). 즉, 주님이 단지 '신령과 진정'이라는 조건만을 붙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곧,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은,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거부하시는 예배'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분별하신 기준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인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믿음'을 '노아의 삶'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외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이다(히 11:7). 우리가 알고 그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지기 위해서 빌던 노아는 세월을 참았을 것이다. 그가 행하는 일은 다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랐을 것이! 더구나 바닷가에서 안을 속지여 배를 짓는 일은 얼마나 조처를 자라나게 하는 일인가! (창 1:7-11) 그가 바닷속과 조처를 하라, 이를, 모든, 그대, 된, 일, 내인, 이, 내인, 그대, 동안, 계속된, 조처에,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도끼질'을 하였고, '믿음의 대패질'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역경을 철하고 땅지철을 하였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거니(히 11:7).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정신적 삶'과 자기의 민족을 위한 '현실적 삶'을 구분하는 '전반 삶'의 기술이 아니라 배는 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다'(롬 1:17).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의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란 지금은 잘 분별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엄격하게 구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신학 칼럼

인간의 구성적 본질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일반적인 인간학, 인류학과는 달리, 사람에게 대하여 고찰할 때 '특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인간의 구성적 본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의 인간이 두 부분 즉 육체(body)와 혼(soul) 혹은 혼정(heart)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분설이 인간 구조에 관한 통상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 요소와 영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분설은 인간이 육체와 혼(heart: 6:25-10:28), 혹은 육체와 영성(12:7; 12:9:25,5)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의해서 확증을 얻는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롬 8:10; 12:6; 5:5, 7:1, 7:14, 2:3, 골 2:5). 죽음은 가끔 혼의 포기로 언급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의 포기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런 두 용어의 사용은 다른 인간의 한 영적 요소를 두 가지 다른 경계에서 사유되어 오도록 한다.

또 하나는 사람이 세 부분 즉 육체와 혼
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견해, 삼분설이다.
이 인간론은 성경에서는 다스 것이 아니라 헬
라철학에서 온 것이다 몇몇 신학자들이 따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의 성질에 관
하여 일치점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혼과
인간성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혼
을 가리켜서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 생명의
원리로 보고 영을 가리켜서는 이성적 원
리로써 인간 생명의 원리로 보았다. 이들은
그 근거로 살전 5:23과 히4:12절을 들고 있
으나 이 구절들은 그 표현을 엄격하지 않
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세 부분설의 실
재를 마음에도 두고 한 싹임이 아니라 다만
전인(全人)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사실일
을 알 수 있게 된다.

정진호 (목사, 7교구 지도)

Time to seek the Lord

(Hosea 10:12)

“Sow with a view to righteousness, Reap in accordance with kindness;
Break up your fallow ground,
For it is time to seek the LORD Until He comes to rain righteousness on you.”

What do farmers think about when they look over their beautiful fields? They think about reaping a bountiful and good harvest. Humans need to think about their beautiful souls in a similar fashion. We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our souls, if not, we cannot reap anything worthwhile. Those who neglect their souls will find their inward fields hardened and weed infested. What a sad experience. Can you imagine someone looking for fruit and not being able to find any? Here in today's message is God's warning, He is calling out "Break up your fallow ground" (v. 12). He wants us to make ready our souls to receive His blessings.

When should we start to plow through our neglected inward fields? Now! Not later, right now, "For it is time to seek the Lord" (v. 12). The time is at this moment, for pretty soon our time will cease. Right now is the time we should do our duty. There's no time for delay. It's already late, but not too late yet. Right now is the time to start seeking the Lord, so that "nothing worse may befall you" (Jn. 5:14). We don't need more trouble (Is. 1:5), we need to return to the Lord immediately. Remember the Israelites' terrible decisions? They said they would seek the Lord, but instead they sought wealth and prosperity and received punishment after punishment. How different are they from us? Let's start cultivating our unheeded hearts before our destiny ends. From now on, whatever time is left in our lives, let's follow God's will, "so as to live the rest of the time in the flesh no longer for the lusts of men, but for the will of God" (1 Pet. 4:2). Amen! We don't know how long of a life we have left, but with what time remains I want what's left of this flesh life to be under His will. I want every part of my soul to be plowed and ready for His righteousness. How about you?

"Now set your heart and your soul to seek the Lord your God; arise, therefore, and build the sanctuary of the Lord God, so that you may b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the holy vessels of God into the house that is to be built for the name of the Lord" (1 Ch. 22:19). Your heart and soul are the temple of the Lord. Let's begin a new life and remove our old style of doing things. After he received the Holy Spirit, Peter boldly proclaimed to Israel, "Therefore repent and return, so that your sins may be wiped away, in order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cts. 3:19).

What should we do to make our souls ready? Seek the Lord,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Ps. 100:4). Amen! My dear friends,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Is. 55:6&7). This is His invitation. He is calling you. The blood of Jesus invites you right now to come and be cleansed. God wants to forgive you. Please don't delay because you're busy with nonsense or preoccupied with "important" business.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2&13). It is your job to accept Jesus, ask Him to forgive you, and seek His glory in all things. Right now is just the time to repent, receive the Gospel, and soften the ground for His Spirit.

Let's be born again! Let's seek His kingdom, righteousness, and glory. As some

of Jesus' disciples were walking away from Him, He asked the twelve whether or not they wished to go also. Peter replied,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words of eternal life" (Jn. 6:68). How many of you sitting here today are walking away and seeking another place and other things? How many of you are looking for political power, business success, enjoyment, fashion, health, or whatever in other places? Come on, wake-up! "For yet in a very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Heb. 10:37). He's coming soon. Who's He? He is righteousness, Jesus Christ. When you seek Him, when you search for Him, you will get an abundant life filled with His wonderful grace, like the wonderful rain that a farmer needs. For all those who believe will receive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Rom. 3:22). Amen.

Let's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come a righteous people, a child of God. "For it is time to seek the Lord", especially these days. The 21st century has brought in a new ethos called postmodernism. This centerless mind thought eliminates universals, such as absolute truth, and embellishes difference and complexity at the expense of everything else. Let me ask you, are you living a centerless existence or is Jesus the focal point of your life? How much time did you spend in prayer this week? Did you sit down to read the Bible at all? Come on my friends, seek the Lord. Six months of this year 2001 have already passed. Half the year is gone and it's already late, but not too late. Right now, repent and come to Him. Jesus died for us. He gave us everything. He is the total answer. He is the center. Don't look for other things, seek Jesus Christ. Amen! 

“별과 같이 빛나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बाट · 스타 부부가 5월 29일 몽골로 떠났다. 선교위원회의 식구들과 함께 귀국예배를 드리고 인천 항구로 출발하였다. 비로 인해 약 2시간이 넘어 도착한 인천여객터미널, 똑같이 해외로 나가는 관문이지만 인천공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시골 어촌의 투박한 풍경 그대로였다. 시골 시골한 중국 동포들과 관광가려는 한국 아줌마들을 헤치고, बात · 스타 일행과 함께 출입국 관리소로 들어갔다. 담당 공무원의 날카로운 눈빛과 말투 속에는, 그동안 이들이 어디서 1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서 단속되지 않고 일하다가 이렇게 나가는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역력히 나타났다. 아울러 당국의 단속망을 잘 피했다는 이들을 내심 대견해하면서도 다소 떨떠름해하는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관제법에 의해 자진출국이라는 도장을 받고 여권을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시속 23노트의 속도를 내는 26,463톤급 선박으로서 출격경쟁 604명인 Car-Ferry 천인호는 저녁 7시에 출발하여 익일 저녁 7시 천진에 도착예정이었다 당일 기상과 화로 인해 두 시간 연기를 당했다. 국제적 항공업체 중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비오는 날씨 분위기와 이별을 달래려는 듯 장대 스피커에서는 ‘진주와 아바미’가 부르는 ‘한 여름밤’이라는 노래가 서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회상에 잠겼다. 정말 우리는 많은 여름밤

민 병 용 (신교 전도사)

을 수련하며, 심방으로, 자주 기거하는 소읍과 열기 속에서 보냈다. 때론 피곤하여 아토키도 했지만, 복음의 열매로 함께 감격하던 순간들과 목목히 봉사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노 래선율을 타고 나의 가슴에 생생히 다가왔다. 여름 밤, 정말 그날들은 별이 많이 빛나는 밤이었다. 비단 하늘의 별뿐이었는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열매들이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하였던 그 순간들, 세상은 즐거움을 위해 산으로, 들로, 바다로, 유혹지로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구원의 기쁨으로 동료 몽골인들을 하나라도 더 주의 천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그 시간이 참으로 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4년간 야간근무만을 하느라 낮에 경도 못하고 남들은 요령껏 주일이나 여름휴가 때 바다로 가고 높이 동산도 갔지만 주일 성수하느라 정말 놀러가본 적도 없었던 그들. 그들을 보내기 20여일 전에 권명호 장로님과 신광철 집사님의 기도와 배려로 함께 송양원 목사 순교기념관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여수, 천천을 둘러볼 수 있었다. 여행을 하며 믿음의 길을 다시 다짐하였던 두 사람은 이제 사연 많은 4년의 한국생활을 뒤로 하고 몽골에서의 삶을 향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아쉬운 포옹으로 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시 교회로 출발하였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난 그날 밤 올해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बात · 스타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꿈을 꾸었다. 너무도 마음이 허전한 나머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고 인천항구를 다시 가보고 싶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반갑게 나를 보고 마중나올 것 같았다. 마치 심방을 함께 가지고 장안동의 회암빌라 203호 문을 두드리면 피곤을 이기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던 बात · 스타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마음이 들었다. 이제 정말 떠났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탄자니아의 잔치바를 기억하소서

탄자니아는 본토인 탕가니카와 잔치바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 나라의 종교 분포는 회교가 35%이며 개신교는 1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본 교회와 송 선교사님 김영양 선교사가 있는 잔치바는 전체 인구의 98%가 회교도이다. 김영양 선교사가 이러한 회교의 본거지와도 같은 잔치바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히 복음의 중언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 잔치바 섬은 탄자니아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다. 탄자니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절실하게 복음 전파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심화가 필요하다. 김영양 선교사는 이곳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자동차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면서 훈련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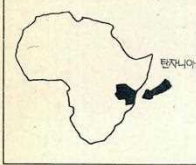
이곳 탄자니아는 회교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잔치바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노예의 후손이거나 본토의 주민이다. 종종 회교 국가들의 강력한 후원으로 회교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거짓되고 적대적인 선전으로 인하여 복음 전도가 지체되고 있다. 탄자니아 현지의 교회들이 자국민 복음화에 대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잔치바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세계 선교지 정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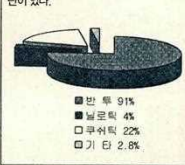
공산주의의 실태

탄자니아(Tanzania)

탕가니카와 잔치바르 섬



3,289만명의 인구와 160개의 토착 종족집단이 있다.



1963년 영국에서 독립, 1964년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조종한 농촌을 집단 농장화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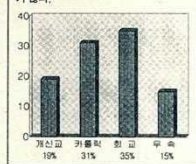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구조가 무너졌다.



기타 산업의 황폐와 수천 약화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 \$120.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회교도들에게 특혜가 많다.



회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정치권에 세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중등 교육 자원이 유입되어, 회교사신 간첩과 선교에 피고 있다.



AIDS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무섭게 번지고 있다.



목회자가 부족해서 한 목사가 20개 교회를 돌보고 있는 형편이다.



인구의 50%가 15세 미만으로 청년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



조이선교출판사
만화로 보는 세계지도정보에서 발췌 요약

중환교회 김영양 평신도 선교사 (탄자니아) 기도제목

* 중환교회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환교인들이 됩시다.

1. 자동차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 주일에 두번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2. 유치원 교사 및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통해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3.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기를

어부

양현수 (대학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 4:18-20)."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매일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얼굴은 강한 햇볕으로 항상 검붉게 타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막히고, 고기를 낚을 때 생긴 상처가 여기 저기에 나 있었습니니다. 웃도 항상 짓어 있었습니니다. 게다가 생긴 비늘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기도 했습니니다.

또한 매일 생선을 만지다 보니 생긴 '비린내'가 가시질 않았습니니다.

비린내, 옷을 갈아입으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옷에서 풍기는 비린내는 감출 수 없었습니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더를 가도 어부라는 꼬리표를 떼어 낼 수 없었습니니다. 그들은 고기 낚는 일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으면 그물을 손질하거나 배를 손질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고기를 많이 낚았더라', '어디가면 어떤 고기가 많이 있더라' 라는 소문을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찾아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니다.

저는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니다. 손에는 항상 그물 때문에 이리저리 굳은살이 박혀 있고, 몸에는 비린내가 떠나지 않습니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배를 손질하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그들의 삶, 단지 취미 생활로 고기를 잡는 낚시꾼이 아니라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 사람의 '삶'이라는 어장으로 보내십니다.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니다. 과연 나에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비린내가 나는지, 예수님이 명하셨던 사람을 낚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인지, 또한 나는 얼마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사람을 낚을 때 사용하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좀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니다.

(창3:1-21) -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를 범치시고 두려움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였습니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피하려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여 사랑을 받는 모습이 '기쁨'을 버려줍니니다.



문고 및 아이디어제공 : minj74@jaangminn.com

Cartoon by www.jaangminn.com

2001. July. 08

성령의 춤을 추게 하소서

임진희 (대학부)



제가 무용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아파로 인한 가정의 불화 속에서도, 엄마는 밝고 예쁘게 자라라고 어릴 적부터 저에게 무용을 배

우게 하셨습니다. 무용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나의 생활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꿈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고된 작업이지만, 내 안의 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야만 줄 수 있기에 나는 말씀과 기도에서 이 원동력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연습 가운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의 동작도 추려 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무용이라는 귀한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내 평생 성령의 춤을 추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시편 149:3)."

작은 삶을 살면서

김성권 (대학부 간사)



뭔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방안이 환하다. '지금 몇 시지? 새벽 3시다. 같은 방을 쓰는 분이 시험공부를 한다고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 난, 형광등 불빛이 있으면 잠을 못자는데... 왜 도서관 놔두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냐고'

중시령거리며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 잠을 청했다. 잠시지만 그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기 혼자 편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마음이 정말 미웠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의 삶을 산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아무런 조건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사랑이 참으로 고맙고 은혜롭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고 싶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무시하는 때에도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미워진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다. 그리고 부끄럽지

만 교회에 나가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오늘 하루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하시고 사랑스런 눈길로 기다리신다. 그 사랑이 진실로 기이하고 나를 사랑하는 은혜가 고맙고 고마워 오늘도 두 손을 모은다.

일터에서

햇살이 비취는 곳

원 성수 (권사, 14교구)

분주한 가운데 어느덧 2001년도 6개월이 지났다. 최근 하루 하루 다가오는 회사 업무의 무게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어 습기 찬 고온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칫 짜증 섞인 말다툼으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듯 하다. 그럴수록 마음 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 일들을 운유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전에 거주하던 천안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와야 했는데, 그것이 의외지 않아 약 6개월 동안을 장거리 출장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수원에 거주할 집을 구하는 문제가 여간 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두 딸들이 생소한 곳으로 옮겨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결심하고 수원에 집을 구하는데, 추운 겨울철인이라 집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틈틈이 집 문제로 기도를 하던 가운데 집을 찾으러 나섰지 하루만에 많은 고생을 하지 않고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것이 주께서 인도하신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었다. 그전에 직장을 구하던 일과 그 안에서 수행할 직무를 결정하던 과정이 마치 정밀한 설계도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소식을 접하고는 그 나이에 어떻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냐고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곤 한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보이는 만큼 확신을 가지고 갔을 뿐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햇살의 원리로 이해가 된다. 우리가 밭 길을 걸어갈 때, 햇살로 길을 비추며 가면 비록 사방 5.6미터의 거리 밖에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원하는 만큼 멀리 볼 수는 없지만 반경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렇다면 필경 이르지 못할 거리란 없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자 할 때 햇살이 비치는 거리 만큼만 볼 수 있다면, 그 거리를 보면서 확신 가운데 의의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주님의 이끄심기 아니면 나의 삶을 도우지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나에게만 독특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 향한 열의와 목상과 확신, 그리고 감사 속 감사의 작은 것들이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광둥 상 앞에서 경배하리이다(시 132:7)"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지승은' 성도를 소개합니다

작은 아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인생이 너무나 피로워서 무척 힘들었던 어느 수요일 오후 5시쯤 무작정 찾아온 교회가 충원되었다. 갈릴리 홀 뒤편에 있는 언니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어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 가시다가 다시 오셔서 식사를 권하게 되었고 경찰 전도의 가서 커피도 마시게 되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기를 권하였다. 그 언젠가 친구가 너를 하나님님이 택하셨다고 한 말이 기억되고 지금 참으로 그 نعم을 깨닫게 됐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예수님께 100% 마음을 의지하고 열심히 믿을 생활하려고 한다.

'곽민숙' 성도를 소개합니다

불교에 열심히 남편을 따라 절에 갔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늘 교회에 다니고 싶었는데 누군가 강력히 권하는 사람이 없었다. 충원 교회에 인도해준 집사님이 한 번 전도교회 이사하시는 바람에 혼자 교회에 오는 일이 낯설고 힘들다. 교회 나옴과 마음은 편하지만, 같이 인도해준 주교 교회에 대해 알려 주고 가르쳐 줄 동역자가 필요하니, 딸이 들어 있는데 내도 주일 학교에 가야할 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일에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쏘인다.(인터버 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별로 주일 학교와 장소를 알려 주었는데... 그래도 친절히 안내해 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한숙경 (새가족부 통신원)

+ 양오설

"조금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 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시 119:92).

5교구 김재수 집사(남72세) 비만유당으로 장남 시립 병원 593호에서 투병 중이며, **한정자 성도(여63세)** 혈소판 감소증으로 순천향 병원 839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6교구 홍동선 타교 집사(남57세) 갑상선암으로 삼성 의료원에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면의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심음하는 환우들이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굳게 의지함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탐방

주의 만찬

17교구 2지역 영남·정미 구역



혹시나 비가 내릴지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구역집과 동승하여 구역예배 장소로 향하였다. 구룡 터널을 지나자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다. 구역예배 장소에 도착하니 구역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역 식구들은 바쁘게 움직

었고, 현재 교구장님과 전일 교구장님이 참석하셨다. 목사님께서 구역 상황을 파악하신 후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럴 때 성도들은 진정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

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일에 있을 만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2개월마다 거행되는 성찬은 엄숙하고 경건하며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때과 포도주를 마시며 새로운 힘을 얻고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나 주일만 주님을 만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갈급함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배부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생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무궁해야 하며, 특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구성원들은 그렇게 살기를 함께 다짐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무의미하게 참여했을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에 도전해야할 성도의 신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울러 성찬에 참여할 자신들과 접매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였다.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 기도제목을 나누었는데, 특히, 조인옥 집사님은 셋째 며느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늦게 주님을 믿었기에 신앙적인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안타깝히 하시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킬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 밖에 눈 수술, 손자의 질병, 육신의 연약한 등, 시로를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 비슷한 연배대로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구역의 환한 모습을 보았다. 끝으로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별되어 택해 주신 '거룩한 백성'이란 단어를 다시 새겨 보는 한 날이었다. (임동경 기자)

나의 간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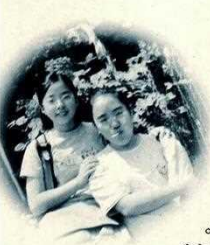
염미숙 (권사, 14교구)

나는 권사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봉사하라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놓치고 모든 권사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의 은사를 받는 제일이 있기를 우리를 붙들어서 주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맡은 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준비를 잘 감당하므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였더니 드디어, 얼굴이 뜨거워지며 회개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며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나 부르는 그 날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리이다"라는 신앙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수 증거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라. 성령 충만 받으므로 나의 걱정이 모두 사라진 이번 수련회는 내게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면회를 하면서 ...

강운정 (중동1부)



천국교회를 다닌 지 벌써 11년쯤 되었네. 학야부를 거쳐 중동부에 이르러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소년부에 가면서부터 면회를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동1부에 들어와서도 면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중동

부부터는 심어놓아나 핸드백 밑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소년부부터 면회를 통해 쌓아온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

지금 중동부 면회에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면회회는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예전보다 면회 임원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지만 모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쓰는 좋은 일꾼이다. 나는 면회회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점점 더 신앙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면회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면회회 친구들! 사랑해요.

면회
생
태
문
제
아

김성경 (전도사 · 중동2부 주지)

중학교 2학년은 원래 문제가 많은 때라고 한다. 사실 나는 너무 범생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때 범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일 수는 있어도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원래 아이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며 성장하는 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정상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나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던 것들이 사실상 공동학급 시절 말기나 대학교 생활에 접어들면서 다 폭발했기 때문이다.

중동2부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최소한 교사들은 아이들이 잠재된 폭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막스 그람의 부모들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해서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점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별로 상관없이 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면서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전 우리 아이를 아주 잘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 지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100 퍼센트 자신을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역대 최고의 범생이었던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지 아니고서 아이들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는가? 설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를 신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아이들의 문제를 들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무지에 대한 겸손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인내와 사랑과 기도를 더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께 그들을 온전히 맡기는 것 겸손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무지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나치게 커져 버린 "나"

나는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모든 직업을 다 그렇겠지만, 가끔 일이 잘못되면 언제나 내가 원망의 대상이 된단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돌아갈 때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아니, 적어도 그런 것처럼 보인다. 아주 미칠 지경이었던 어느 날, 나는 타이핑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서러운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타이프 기계에서 잘라내야 할 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또 집에 늦게 가게 되겠군." 나는 그 할거리를 찾아 들어 들었다. 그것은 알파벳 "I"자, 즉 "나"를 뜻하는 활자였다. 순간, 나는 내 손 안에 훌륭한 공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아니었던가? 지금 이 조그만 활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당신은 늘 'I' 자를 너무 강하게 써 왔습니다."

가이디 코스트 6월호(에이. J. 스티븐슨)

질문의 생

이사야(Isa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무엇보다도 '거룩'에 대한 의미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죄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본질상 그 분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자체가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적용하는 거룩이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리해 놓을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를 생각하면서 읽으신다면, 어려운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종할 만한 죄에 몰려있는지 철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거룩함'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발견하게 되어 참된 겸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통해 우리는 참된 '겸손'이란 바로 자신이 죄악을 철실하게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정말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리고 구원과 회복과 영광이 참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모세에 대한 언급은 어떤 성경보다도 선명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머리 모건(G. Campbell Morgan)은 이사야 52:1-53:12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이처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원은 신구약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 구원에서 소름끼치는 아들을 느끼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한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기록자들은 메시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52:15-루 15:21 / 53:1-로 10:16, 12:38 / 53:4-마 8:17 / 53:5-6-베 2:22-25 / 53:7-8 -행 8:32,33 / 53:12-막 15:28, 눅 22:37).

(김동현 목사·순환국 지도)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누웠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자꾸만 물질에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러나는 실업지도 진정한 감사의 모습보다 승낙력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에 집착할수록, 그 돈이 바로게 쓰여져야 할 부분까지도 외면하게 됩니다. 가끔은 돈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착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소유자를 내리 끌어버린 사람들이 다(하나님을 추구할 중세).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자격이 있는 성역이 있었다.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외부에는 손아래 부어 주신 수천의 선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복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들이던 모든 것들이 영혼에 매를 끼치는 감제력을 가진 원인이 되었다. 우리의 재단은 하나님께서 중심 성역에서 쫓겨나시고 사물들이 그곳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었을 때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사람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소유자를 내리 끌어버린 사람들이 다(하나님을 추구할 중세).

내가 다스려야 할 물질에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에 버는 목욕에 대해 다스리 생각하게 하십니다. (권한임 기자)

